

## 제주지역 관광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

한국은행 제주본부

홍수성 과 장

안소희 조사역

Tel 064 720 2514

Email jeju@bok.or.kr

### < 요약 >

#### 검토 배경

- 제주 관광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수입이 큰 폭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음
  - 그러나 관광수입은 경제주체로의 소득 배분 등 질적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관광 부가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
-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 관광 부가가치를 추계하고 그 추이를 살펴봄
  - 한편 지난해 사드배치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봄

#### 제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추계결과 및 분석내용

- 【관광 부가가치 감소】 2017년중 제주지역 관광수입은 5.6조원으로 2016년(5.5조원)에 비해 증가한 반면 관광 부가가치는 감소('16년 1.7조원→'17년 1.6조원)하였으며 관광 부가가치율도 2015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남
  - 관광 부가가치 감소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할인판매 급증, 동종업체간 과당 경쟁 심화 등으로 관광객에 대한 마진율이 줄어든 데다 일부 관광사업체들이 외국인 모객을 위해 송객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에도 기인
  - 이에 따라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도 감소하는 등 관광객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상황

“제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역중앙은행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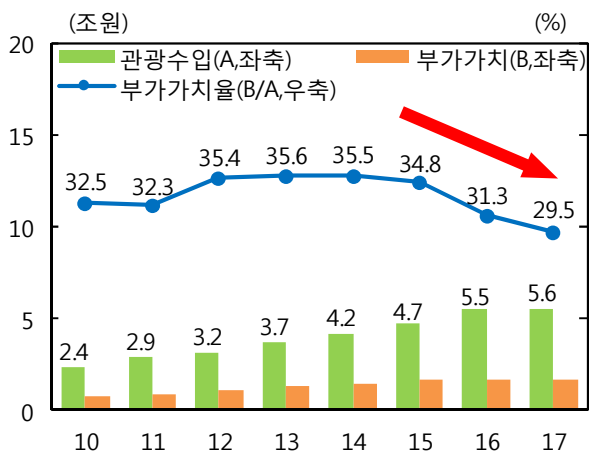


한국은행 제주본부

□ 2017년중 **관광산업 비중**(총부가가치 기준)은 10.0%로 **2015년 이후 하락**

- 2015년까지 농림어업에 이어 2위(공공행정국방 제외)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6년 이후에는 건설업 비중보다도 낮아지면서 **도내 핵심산업**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**위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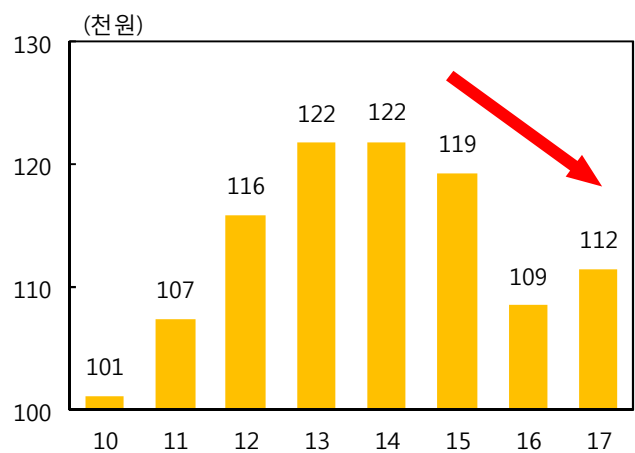
**관광산업 부가가치율<sup>1)</sup>**



주 : 1) 2017년은 잠정

자료 : 경제총조사(통계청 2010년, 2015년), 업종별 조사(통계청, 각 연도), 제주관광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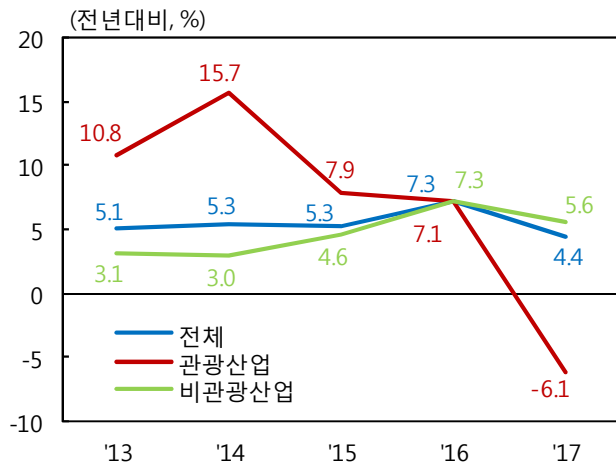
**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<sup>1)</sup>**



□ **【제주 관광산업 성장률 감소 전환】** 제주 관광산업 **성장률(실질)**은 **2015년 이후** 지속적으로 **둔화**되다가 **2017년중**에는 **-6.1%**를 기록하여 **2010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**을 나타냄

- 지난해 사드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데다 업체 간 과당경쟁이 지속되면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데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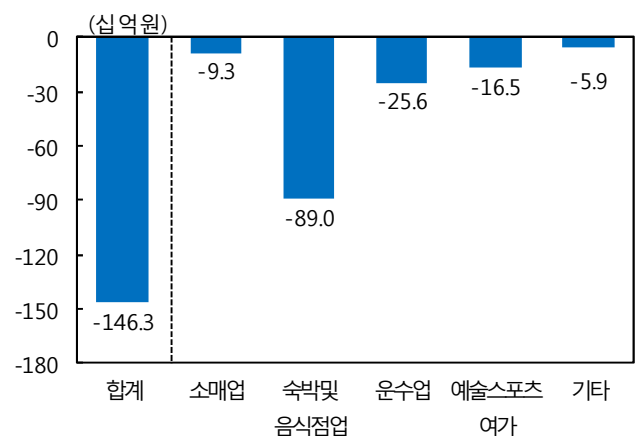
**관광산업 성장률<sup>1)</sup>**



주 : 1) 2017년은 추정치

자료 : 통계청

**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손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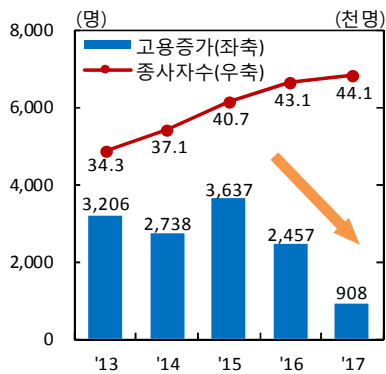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 제주본부, 제주관광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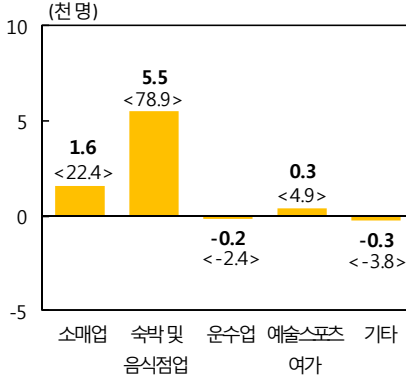
□ **【고용 유발효과 약화, 상대적 저임금 지속】** 2017년중 제주방문 관광객에 의해 유발된 도내 관광산업 **신규 고용\***은 **908명**으로 **2015년(3,637명)의 1/4 수준**에 불과

\* 2015년 3,637명 → 2016년 2,457명 → 2017년 908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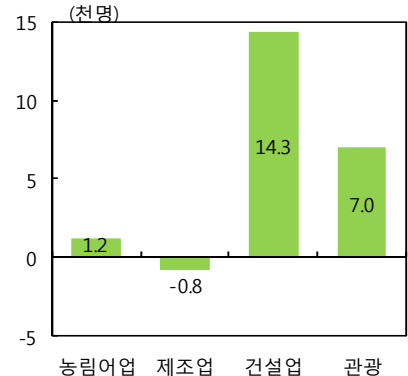
**관광산업 고용<sup>1)</sup>**



**관광업종별 고용효과<sup>1)2)</sup>**



**타 산업과의 비교<sup>1)2)</sup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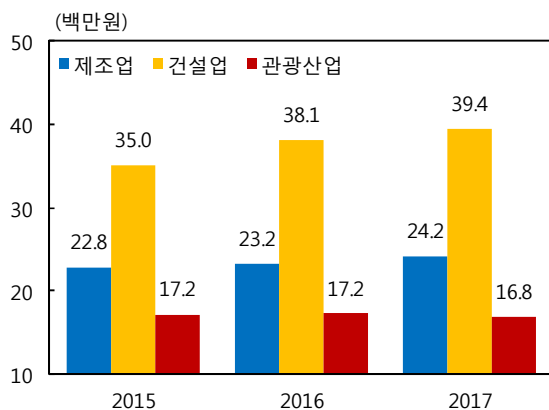
주 : 1) 2017년은 잠정      2) 2015~2017년중

3) < >는 2015~2017년중 고용증가에 대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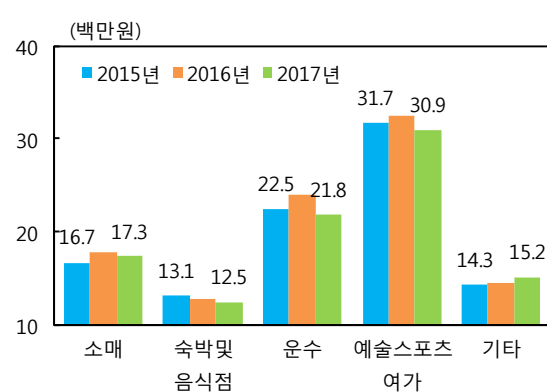
자료 : 경제총조사(통계청, 2015년), 취업자수(통계청), 고용노동통계(고용노동부, 각 연도),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

○ 관광산업의 **1인당 연평균임금**은 2017년중 **16.8백만원**으로 **건설업**(39.4백만원)의 **절반**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**제조업**(24.2백만원)에 비해서도 **크게 낮은 수준**

**제주지역 업종별 평균임금<sup>1)</sup>**



**관광산업 업종별 피용자보수<sup>1)</sup>**




주 : 1) 2017년은 잠정


자료 : 경제총조사(통계청, 2015년), 업종별 조사(통계청, 각 연도), 고용노동통계(고용노동부, 각 연도), 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(통계청, 각 연도)

## 평가 및 시사점

- **【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약화】** 최근 제주 관광산업은 **관광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관광 부가가치율이 줄어들고** 그 결과 성장률도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**질적 성장이 약화**되는 모습
    - 이는 업체 간 **가격경쟁 심화**로 **경영여건이 악화**된 가운데 특히 지난해 **사드 배치**에 따라 **외국인 관광객이 감소**한 데 기인
    - 한편 **2016년 이후** 관광객에 의한 **신규고용 효과가 줄어들고** 있는 데다 **상대적 저임금이 지속**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  - **【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】** 제주 관광산업의 **고부가가치화**를 위해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**경영여건**을 **개선**하고 그 효과가 **피고용자의 임금 상승**으로 이어질 수 있는 **선순환 구조**를 마련할 필요
    - **(경영여건 개선)** 경영여건이 열악한 업종에 대해 **구조조정**을 실시하고 **과당경쟁이 심한 업종의 경우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**도 검토
    - **(관광상품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)** **과다한 인센티브 지급**은 **관광산업**의 성장을 **저해**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격중심의 마케팅에 치중하기 보다는 **여러 관광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**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**맞춤형 마케팅 전략**을 **중시**할 필요
    - **(지자체의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)** **제주 관광산업**은 부가가치 감소 이외에도 여러 **하방리스크\***가 **잠재**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주도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/F 구성 등을 통해 이들 **잠재리스크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**이 필요
- \*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, 중국인 단체관광객 회복 지연, 지역주민과 관광객간 갈등 문제 등



# 제주지역 관광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



2018.7

한국은행 제주본부  
경제조사팀



## 목 차

<b>I. 검토 배경 .....</b>	<b>1</b>
<b>Ⅱ. 제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추계결과 및 분석내용 .....</b>	<b>2</b>
1. 관광 부가가치 감소 .....	2
2. 제주 관광산업 성장률 감소 전환 .....	4
3. 고용 유발효과 약화, 상대적 저임금 지속 .....	6
<b>Ⅲ. 평가 및 시사점 .....</b>	<b>8</b>
<붙임 1> 관광산업의 범주 및 추계방법 .....	10
<붙임 2> 제주 관광 부가가치의 요소소득 분석 .....	12

## I

## 검토 배경

□ 제주 관광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**관광수입이 큰 폭 증가**하는 등 **외형적으로 높은 성장세**를 지속하였음

○ 2017년중 제주지역 관광수입은 5.6조원으로 2010년(2.4조원)에 비해 약 2.3배 확대(한국은행 제주본부, 제주관광공사)

□ 그러나 관광수입은 경제주체로의 소득 배분 등 **질적 측면**을 설명하기에는 **한계**가 있어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**관광 부가가치\***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

\* 총산출액에서 중간비용을 차감한 부분으로 근로자와 사업체에 각각 귀속되는 소득과 향후 사업체의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

□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**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파악**하기 위해 제주 **관광 부가가치**를 **추계**하고 그 추이를 살펴봄

○ 다만 본 연구는 관광객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에 집중하여 “관광객 및 관광산업 매트릭스”의 A부분에 한정\*하여 추계 및 분석함

\* 관광산업 부가가치 추계방법 및 이용자료는 <붙임 1> 참조

### <관광객 및 관광산업 매트릭스>

이용업종 \ 이용주체	관광객 (비제주도민)	제주도민
관광산업	A	B
기타산업	C	D

○ 한편 지난해 사드배치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봄

## II

## 제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추계결과 및 분석내용

### 1

### 관광 부가가치 감소

□ 2017년중 제주지역 **관광수입**은 5.6조원으로 사드배치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(5.5조원)에 비해 약 **1천억원 증가**한 것으로 나타남(제주관광공사, 2018.6월)

□ 반면 **관광 부가가치**는 1.6조원으로 2016년(1.7조원)에 비해 **1천억원 감소**하였으며 **관광 부가가치율**\*도 **2015년 이후 감소세**가 뚜렷하게 나타남(<참고 1> 참조)

\* 관광 부가가치 ÷ 관광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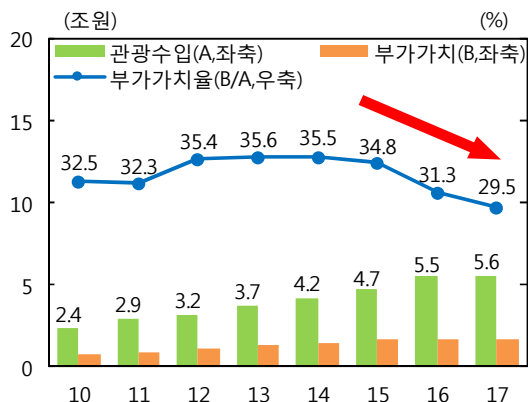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의 할인판매 급증 및 동종업체간 과당 경쟁 심화 등으로 **관광객에 대한 마진율이 줄어든** 데 주로 기인

○ 또한 일부 관광사업체들이 외국인 고객을 위해 **송객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강화**한 것도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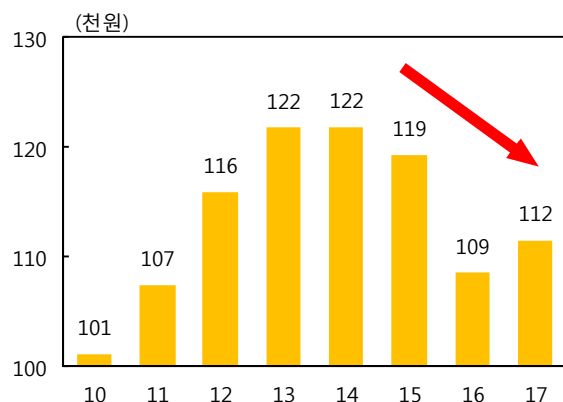
□ 이에 따라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도 감소하는 등 **관광객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** 상황

○ **2017년중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**는 112천원으로 **2015년 이후 감소 추세**

관광산업 부가가치율<sup>1)</sup>



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<sup>1)</sup>



주 : 1) 2017년은 잠정

자료 : 경제총조사(통계청 2010년, 2015년), 업종별 조사(통계청, 각 연도), 제주관광공사



<참고 1>

## 제주 관광 부가가치 비중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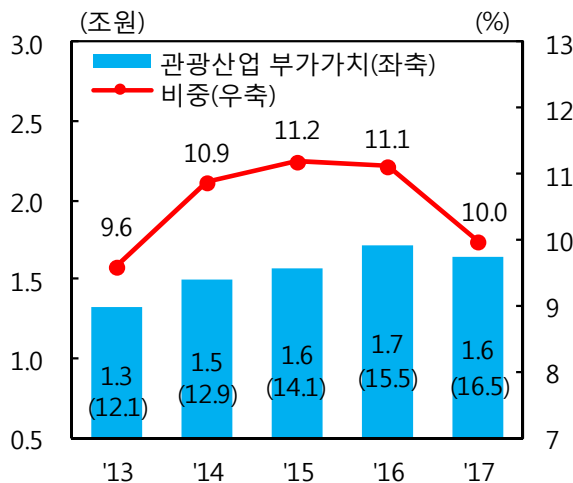
□ 2017년 중 **관광산업 비중**(총부가가치 기준)은 10.0%로 **2015년 이후 하락**

- 2015년까지 농림어업에 이어 2위(공공행정국방 제외)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6년\* 이후에는 건설업 비중보다도 낮아지면서 **도내 핵심산업**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**위축**

\* 2016년 중 산업별 비중 : 농림어업 11.7%, 건설업 11.4%, 관광산업 11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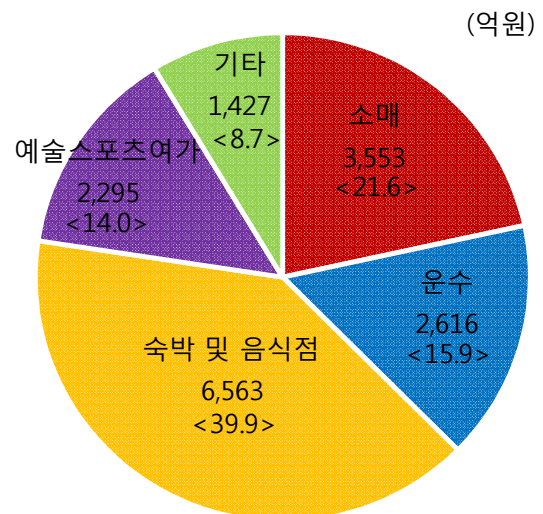
□ 관광산업 내 업종별로는 **숙박 및 음식점업**이 6,563억원으로 총 부가가치의 **39.9%**를 차지하고 있으며, 소매업(3,553억원, 21.6%), 운수업(2,616억원, 15.9%), 예술·스포츠·여가관련 서비스업(2,295억원, 14.0%) 순임

관광산업 부가가치 및 비중<sup>1)2)</sup>



주 : 1) 2017년은 추정치  
2) ( )내는 총부가가치  
자료 : 통계청

관광산업 부가가치내 업종별 비중<sup>1)2)</sup>



주 : 1) 2017년 기준(추정치)  
2) < >내는 관광 부가가치 대비 비중

## 2 제주 관광산업 성장률 감소 전환

- 제주 관광산업 성장률(실질)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2017년 중에는 -6.1%를 기록하여 2010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

\* 2017년 도내 GRDP 성장률은 4.4%로 추정(한국은행 제주본부, 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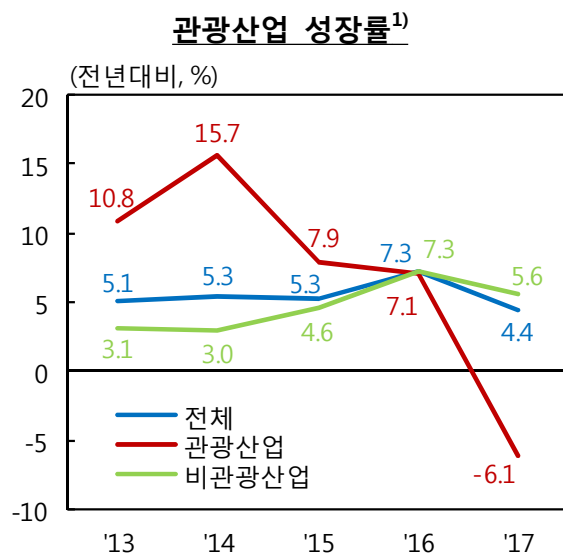
- 이에 따라 성장기여도\* 및 성장기여율\*\*도 각각 -0.6%p, -14.1%를 기록

\*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각 부문별 기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, 해당부문의 성장률에 전년도 전체 GRDP 중 해당부문의 명목비중을 곱하여 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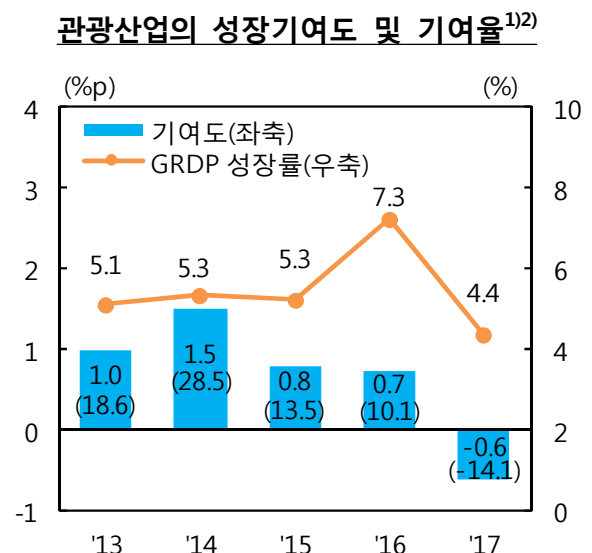
\*\* 성장기여도를 전체 경제성장률의 백분비로 치환한 것을 의미

- 지난해 사드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데다 업체 간 과당 경쟁이 지속되면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데 기인(<참고 2> 참조)

- 업종별로는 렌터카 등 기타서비스업이 내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인하여 5.0% 성장한 반면, 소매업 등 여타 업종은 모두 감소



주 : 1) 2010년 실질 기준, 2017년은 추정치  
자료 : 통계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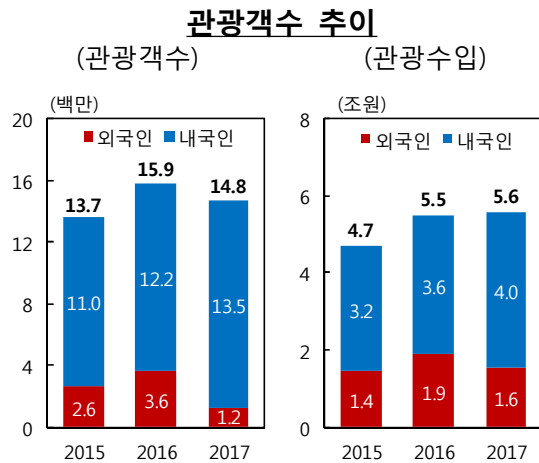
주 : 1) ( )내는 관광산업의 성장기여율  
2) 2010년 실질 기준, 2017년은 추정치  
자료 : 통계청

<참고 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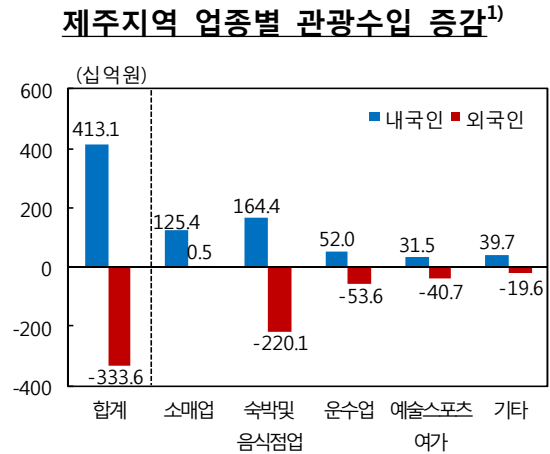
**사드배치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\***

\*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한 도민 및 내국인 관광객의 대체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

- **(총수입)** 2017년 3월 사드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**외국인 관광수입**은 전년대비 **3,336억원 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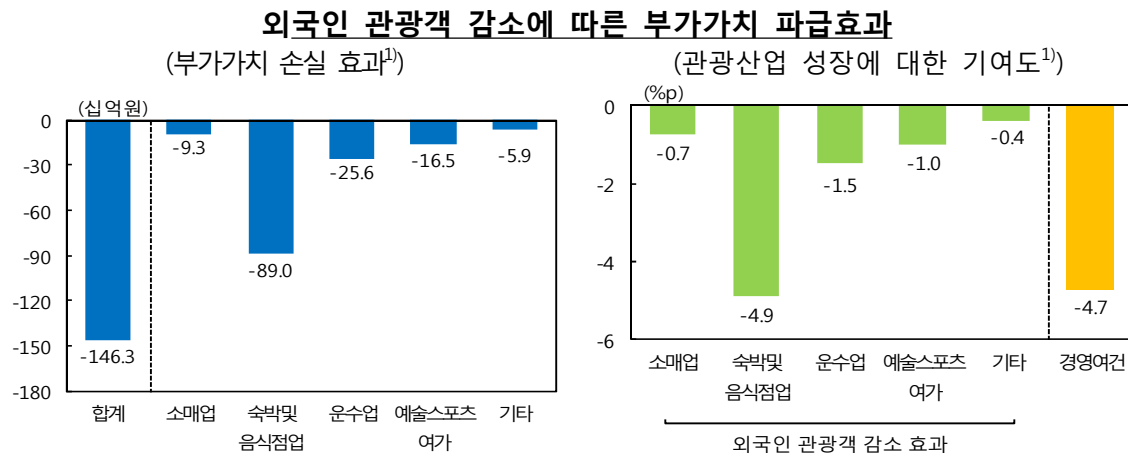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제주관광공사



주 : 1) 2017년중(잠정치)  
자료 : 제주관광공사

- **(부가가치)**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**총부가가치**는 **1,463억원 감소**
- 업종별로는 **숙박 및 음식점업**(-890억원)이 **절반**을 차지하는 가운데 **소매업**(-93억원)의 경우 관광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**총부가가치**는 감소
- **(성장기여도)** 2016년과 2017년간 성장률의 차이는 -13.2%p('16년 7.1% → '17년 -6.1%)로 이중 **외국인 관광객 감소**가 -8.5%p, 과당경쟁에 따른 **경영여건** 악화가 -4.7%p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


주 : 1) 당해년가격 기준  
자료 : 한국은행 제주본부, 제주관광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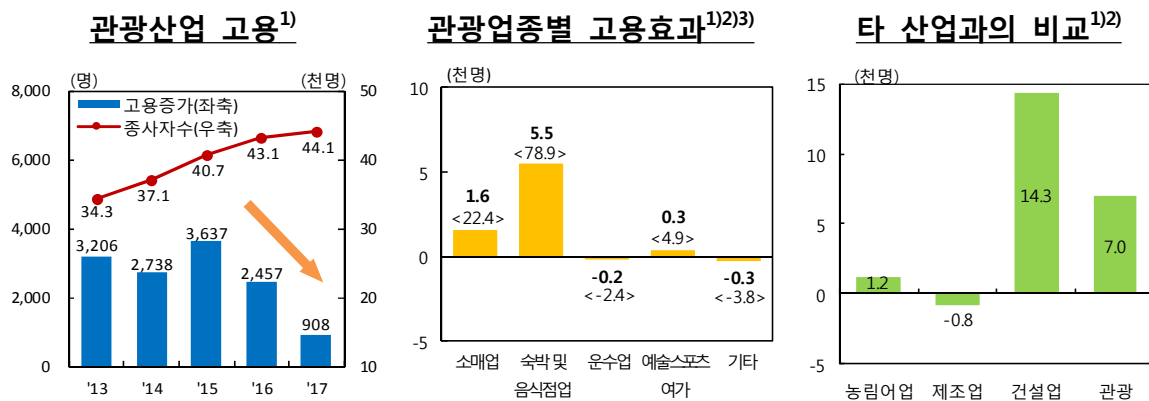
주 : 1) 2010년 기준년가격 기준  
자료 : 한국은행 제주본부, 제주관광공사

### 3 고용 유발효과 악화, 상대적 저임금 지속

- 피용자보수를 이용하여 제주방문 관광객에 의해 유발된 도내 관광산업 평균 종사자수를 추정\*한 결과 2017년중 관광산업 종사자수는 4만4천명이며 신규고용은 908명임

\* 총피용자보수 ÷ 평균급여(2010년 평균 인건비(2015년 경제총조사의 인건비 ÷ 총종사자수)를 산출한 후 고용노동통계(고용노동부)의 각 지역별 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추정)

- 신규고용 추세를 보면 2016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2017년에는 2015년(3,637명)의 1/4 수준에 그치는 등 신규고용이 크게 감소
- 2015~2017년중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증가의 78.9%(5,527명)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은 소매업 22.4%(1,567명)으로 나타난 반면, 운수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각각 203명(-2.4%), 268명(-3.8%) 감소



주 : 1) 2017년은 잠정 2) 2015~2017년중  
3) < >는 2015~2017년중 고용증가에 대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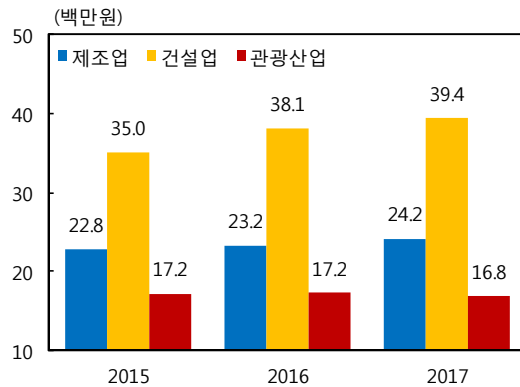
자료 : 경제총조사(통계청, 2015년), 취업자수(통계청), 고용노동통계(고용노동부, 각 연도),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

- 피용자보수를 활용하여 추산한 2017년 제주 관광산업의 1인당 연평균임금\*은 16.8백만원으로 건설업(39.4백만원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제조업(24.2백만원)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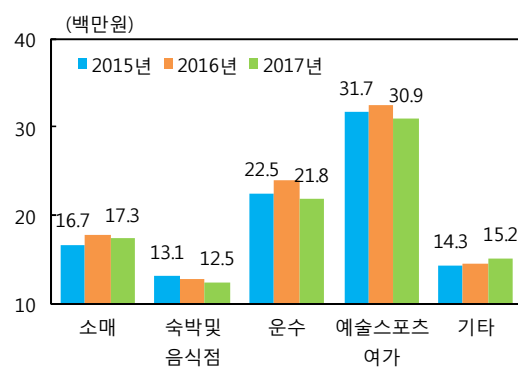
\* 2015년 경제총조사의 연평균임금(인건비 ÷ 종사자수)을 고용노동통계(고용노동부)의 각 연도별·지역별·산업별 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연장

- 관광산업 내 업종별로는 예술·스포츠·여가관련 서비스업이 30.9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수업(21.8백만원), 소매업(17.3백만원), 기타서비스업(15.2백만원), 숙박 및 음식점업(12.5백만원) 순임

제주지역 업종별 평균임금<sup>1)</sup>



관광산업 업종별 피용자보수<sup>1)</sup>



주 : 1) 2017년은 잠정  
 자료 : 경제총조사(통계청, 2015년), 업종별 조사(통계청, 각 연도), 고용노동통계(고용노동부, 각 연도),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(통계청, 각 연도)

## Ⅲ

## 평가 및 시사점

## 1.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약화

- 최근 제주 관광산업은 **관광수입 증가**에도 불구하고 **최근 3년간 관광 부가가치율이 줄어들고** 그 결과 성장률도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**질적 성장이 약화**되는 모습
  - 이는 업체 간 **가격경쟁 심화**로 **경영여건이 악화**된 가운데 특히 지난해 **사드배치**에 따라 **외국인 관광객이 감소**한 데 기인
  - 경영여건 악화로 임금 및 영업잉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등 관광산업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
- 한편 **2016년 이후** 관광객에 의한 **신규고용 효과**가 **줄어들고** 있는 데다 **상대적 저임금**이 **지속**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## 2.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

- 제주 관광산업의 **고부가가치화**를 위해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**경영여건**을 **개선**하고 그 효과가 **피고용자의 임금 상승**으로 이어질 수 있는 **선순환 구조**를 마련할 필요
  - **【경영여건 개선】** 경영여건이 열악한 업종에 대해 **구조조정**을 실시하고 **과당경쟁이 심한 업종의 경우 진입장벽\***을 **높이는 방향**도 검토
    - \*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렌트카 총량제와 유사한 제도를 여타 업종에도 도입
  - 아울러 숙박 및 음식 등 1차 소비산업 중심의 관광산업을 의료, 체험 관광 등 **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**하여 영업이익 개선과 피고용자의 임금 수준 인상을 도모할 필요

- 【관광상품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】 송객 수수료 등 인센티브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상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
  - 사드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모객을 위한 인센티브로 송객수수료를 강화한 것이 부가가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
  - 이러한 점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관광객 유치가 오히려 관광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
  -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관광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중시할 필요
- 【지자체의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】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
  - 제주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감소 이외에도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, 중국인 단체관광객 회복 지연, 지역주민과 관광객간 갈등 문제 등 하방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
  -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/F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이들 잠재리스크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

&lt;붙임 1&gt;

**관광산업의 범주 및 추계방법**

- 관광산업의 범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「관광산업 특수분류」를 따르되 특수분류에는 속하지 않으나 관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을 추가

	특수분류명 <sup>1)</sup>	KSIC 세분류	비 고 <sup>3)</sup>
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	관광쇼핑업, 관광 및 레저용 품 소매업	종합소매업,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 품 소매업, 셔츠 및 기타의복 소매 업,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, 자전 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,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소매업	소매업
	관광운수업	정기·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, 수상운 송업(화물 제외), 항공운송업(화물 제외)	운수업
	관광 숙박 및 음 식점업	관광숙박업, 일반음식점업, 주점업	숙박 및 음식점업
	레저 및 운송장 비 임대업	자동차임대업,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 션용품 임대업, 기타운송장비 임대업	부동산업 및 임대업
	여행사 및 여행 보조서비스업, 전시 및 행사대 행업	여행사업,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 비스업, 전시 및 행사대행업	사업서비스업
	문화,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	박물관 운영업,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 및 동물원 운영업, 자연공원 운 영업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, 공연시설 운영업, 경주장 운영업, 골 프장 운영업, 갠블링 및 베팅업, 기 타 오락장 운영업	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 스업
추 가 <sup>2)</sup>		기타 음식점업(패스트푸드업 등)	숙박 및 음식점업
		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(공항, 터미널 등)	운수업
		이미용업, 마사지업 등	기타서비스업

주 : 1) 지자체, 공공기관(관광협회 등), 관광교육서비스, 금융서비스 등 제외

2) 특수분류 이외에 추가로 선정, 개인사업자중 골프 캐디, 관광통역사, 관광가이드 등도 관광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해당부문의 기초통계가 없는 데다 규모도 매우 작아 추계대상에서 제외

3) KSIC 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

자료 : 통계청



□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음

○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중 생산접근방법을 이용

- ①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업종별 총산출액을 추계
  - 신용카드 이용실적, 관광숙박업 운영실적 등을 이용하여 해당업종의 총산출액을 관광객과 도민으로 나누어 추계
- ② 기초자료를 직접 이용하거나 직접 추계가 곤란한 일부 세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GRDP의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명목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액을 산출
- ③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, 지역IO를 이용하여 각 업종별 디플레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질 총산출액과 실질 중간투입액을 산출
- ④ 실질 총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산출

□ 이용자료(기관별)

- 통계청 : 경제총조사(2015년\*), 통계조사보고서(각년도), 지역계정(각년도), 소비자물가지수(각년도),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(각년도)

\* 2014년 이전 통계와는 일부 시계열이 단절\*될 수 있음(시계열 보완은 통상 지역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이후에 이루어짐)

- 고용노동부 : 산업별 평균임금
- 한국문화관광연구원 : 관광지식정보시스템내 주요 통계(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,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, 관광숙박업운영실적, 국민여행실태조사 등)
-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: 관광객수통계
- 제주관광공사 : 관광객 실태조사
- 한국공항공사 : 공항이용현황(항공사별 현황)
- 각 항공사 사이트 : 노선별 평균 요금 현황
- 한국은행 제주본부 : 신용카드 통계, 기업경영분석(각년도) 등

<붙임 2>

### 제주 관광 부가가치의 요소소득 분석

- 2017년 제주지역의 관광산업 부가가치 요소소득\*을 살펴보면 임금 비중이 고용 증가로 인해 늘어난 반면 영업잉여는 감소

\* 관광수입증 필요경비를 제외한 부문으로 피용자보수, 영업잉여, 고정자본소모, 기타생산세로 구성

- (피용자보수\*) 0.7조원으로 2016~2017년중 취업자수 증가로 인해 연평균 2.9% 증가하면서 총부가가치내 비중이 확대(2015년 44.3% → 2017년 45.0%)

\*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,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, 연금기금 및 고용주 분담 보험금 등 피고용자의 포괄적 인건비 개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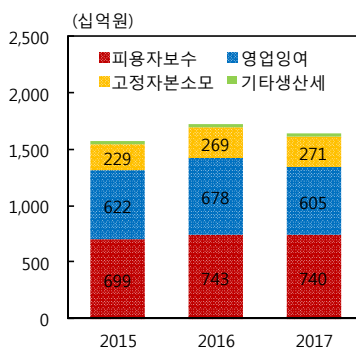
- (영업잉여\*) 0.6조원으로 2016~2017년중 연평균 1.4% 감소하면서 총부가가치내 비중이 축소(2015년 39.4% → 2017년 36.8%)

\*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, 고정자본소모,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항목으로 기업잉여, 순지급이자,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을 포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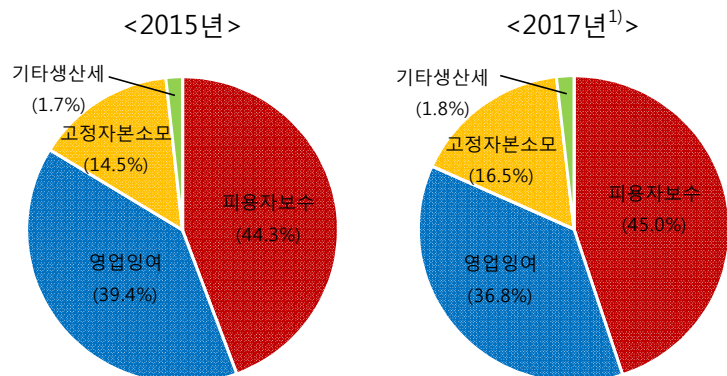
- (고정자본소모\*) 0.3조원으로 2016~2017년중 연평균 8.8% 증가하면서 총부가가치내 비중이 확대(2015년 14.5% → 2017년 16.5%)

\* 일정기간 동안 고정자산이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,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으로 기업회계의 감가상각과 유사

#### 부가가치 요소소득<sup>1)</sup>



#### 요소소득 비중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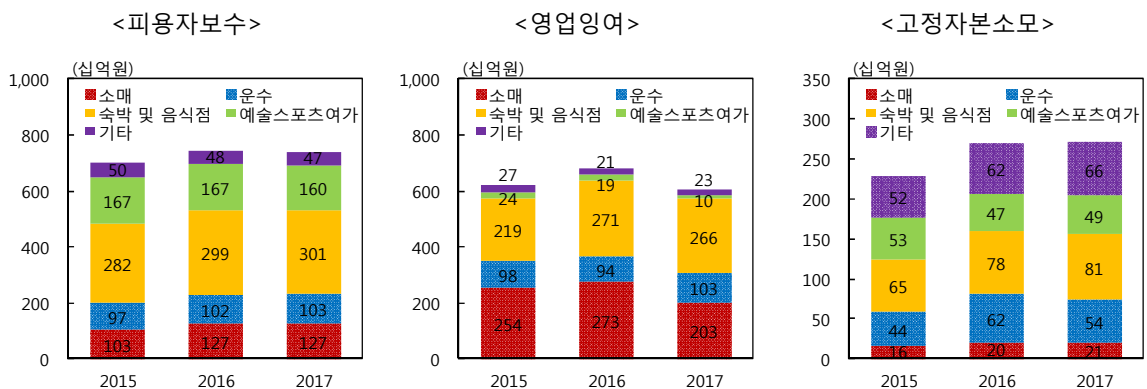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2017년은 잠정  
 자료 : 지역계정(통계청, 2010년 기준), 경제총조사(통계청, 2015년), 업종별 조사(통계청, 각 연도)

□ 2017년 부가가치 요소소득 세부항목을 업종별로 보면,

- [비용자보수(7,397억원)] 숙박 및 음식점업이 3,014억원(전체 비용자보수의 40.7%)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, 예술·스포츠·여가관련 서비스업(1,601억원, 21.6%), 소매업\*(1,275억원, 17.2%) 순임
- [영업잉여(6,052억원)] 숙박 및 음식점업이 2,664억원(전체 영업잉여의 44.0%)으로 총 영업잉여의 절반에 가깝고, 그 다음으로 소매업(2,033억원, 33.6%), 운수업(1,027억원, 17.0%) 순임
- [고정자본소모(2,707억원)] 숙박 및 음식점업이 812억원으로 전체의 30.0%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서비스업(665억원, 24.6%), 운수업(536억원, 19.8%) 순임

#### 업종별 요소소득<sup>1)</sup>



주 : 1) 2017년은 잠정  
 자료 : 지역계정(통계청, 2010년 기준), 경제총조사(통계청, 2015년), 업종별 조사(통계청, 각 연도)